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일상 속 여성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디자인 작품전시회**

인천여성가족재단

## 여성폭력 예방 홍보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사업 소개

- 추진 배경**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 건수에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폭력은 피해자·가해자·방관자가 폭력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대처시기를 놓침으로써 피해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 디자인을 제작하였습니다.

- 추진 개요**

**사업기간** | 2020. 03. - 09.

**사업내용** | 지역기반 청년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디자인 제작

#### 사업 추진 과정

<b>계획 수립</b> 민·관 협력	인천시, 재단, 청년예술가 집단,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사업 방향 논의
<b>사업 추진</b> 인천여성가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 세미나   7월(4회)</b>                      참여작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진행                      1차   여성주의 이해 "성평등 시민의 발명"                      2차   문화예술텍스트 젠더-정동                      3차   포스터, 여성, 공공미술                      4차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양미술사와 시각문화                 </li> <li> <b>실무 워크숍   7-9월(7회)</b>                      참여 작가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디자인 제작                 </li> <li> <b>최종 선정   9월</b>                      결과물(총 15종)에 대해 심사 및 회의를 통해 최종 게시 작품 선정                 </li> </ul>
<b>사업 확산</b> 민·관 협력	여성폭력예방 홍보 디자인 결과물을 활용한 작품전시회, 지하철 광고 및 홍보 활동 진행

### 참여작가

청년작가 **고윤정**

청년작가 **김꽃봄**

청년작가 **김서진**

청년작가 **김정아**

청년작가 **김채영** (여의)

청년작가 **백진영** (고요한)

### 사업 진행

총괄 **강신혜**

실무워크숍 **이충열**

선정작

### 핑크빛 사랑이 아닌 폭력의 증거

데이트폭력의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일상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내용을 알리고 경각심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디자인하였습니다.

120 x 29cm

고윤정

# 선정작



## 디지털성범죄 안전 대처방안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할 디지털성범죄 안전 대처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스토리 형식의 만화로 구현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포스터입니다.

74 x 25.5cm

김꽃봄



## 가스등 불빛 밖으로

나를 위한 것처럼 포장된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는 서서히 나를 잠식한다. 우리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 밖으로 나가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

59.4 x 84.1cm

김서진



## 1366의 위로 I

선정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 알리고,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음지의 그늘에서 용기내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채화로 나타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1366 전화번호를 기억하여 모두가 보호받고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51 × 36.2cm

김정아



## 불명예의 전당

선정작

불법촬영물로 그들만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범죄자들. 피해자에 대한 공감보다 자신의 명예에 관심 있는 그들을 위해 불명예의 전당을 마련했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추악한 민낯은 찍히고 보여지고 기사로써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74 × 25.5cm

김채영 (여의)



